‘2파전’ 차기 우리은행장, 오늘 최종후보 선정

우리금융지주 자추위
이석태·조병규 후보 2명 압축
심층면접·경영계획 PT 진행

이석태 부행장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는 1차 후보 4명 가운데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자추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경영승계프로그램’을 통해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평가했다.

평가는 총 3단계로 걸쳐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회 ▲업무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의 업무역량 평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이석태 부문장은 1964년생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와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우리금융지주의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올해 3월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부행장)에 올랐다.

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으로 입행했으며,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집행부행장보)과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보, 기업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이달초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 선임됐다.

2명의 후보 모두 상업은행 출신으로 당초 금융권에서 예상했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간 파벌싸움은 일단락됐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이날 선정된 2차 후보군 2인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층면접과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은행장 선임의 관건은 영업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회장이 차기 은행장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현장 영업력’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파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한 행장 선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점수와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자회사들이 영업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사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금융지주 체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가계대출, 하반기 ‘연체 쓰나미’ 우려

7월부터 금리인상 따른 부담 증가
9월 말 ‘코로나 금융지원’도 종료
당국 “충당금 등 리스크관리 집중”

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자 상당한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신용대출 등을 줄인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3%로 전월(0.36%) 대비 0.03%(p) 하락했다. 다만, 이는 1년 전보다 (0.22%) 0.11%p 오른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0.17%)보다 0.14%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p 오른 0.20%,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p 상승한 0.59%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액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쯤부터 연체율이 본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은행권 연체율을 끌어올 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 중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관련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부실 위험관리에 돌입했고, 당국도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드 News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 홈쇼핑 ‘엘라이브’ 송출

롯데카드와 롯데홈쇼핑이 협업을 통해 라이브커머스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 디지로카서 엘라이브 시청…롯데카드 결제 혜택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에서 롯데홈쇼핑의 모바일TV ‘엘라이브(L.live)’를 송출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로카앱 내 ‘마이(MY) 피드’ 엘라이브 게시물에서 ‘엘라이브 방송보기’를 클릭하면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요일별 방송 편성표 확인도 가능하다.

엘라이브를 시청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캐시백을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내달 4일까지 최대 5% 할인, 20% 롯데홈쇼핑 적립 등의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ESG에 진심’ 신한카드 세 번째 성과 보고서

신한카드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공개했다.

◆ 2021년 첫 보고서 발간 후 세 번째

신한카드는 지속 가능한 ESG 활동 및 성과, 관련 데이터를 담은 ‘2022 ESG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보고서는 지난 2021년에 발간했다. ESG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지속한다.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인 ‘AA1000’과 미국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ESG 관련 기준을 참고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데이터 책임 ▲디지털 혁신 ▲고객 관점의 금융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지의 꽃은 ‘금강초롱꽃’이다. 금강초롱꽃은 산림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전 프로젝트의 복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구름이 달리지 하늘이 움직이나?”

법륜을 굴리며 떠나간,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 傳記

《동사열전 東師列傳》

《동사열전》은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시점으로 알려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 이래 조선조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 1,500여 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197명의 고승(편저자 梵海 覺岸 강백 포함)과 2명의 불교인 등 총 199명의 행장(行狀)을 기록한 전기물로써, ‘인물로 보는 한국 불교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고승이 언제, 무엇 때문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 오도견성(悟道見性) 했는지, 이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자(譯者) 김윤세(金侖世).
과거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며 6년 간 연재했던, 한국 불교사를 빛낸 199인의 전기(傳記)를 엮은 책이 [동사열전]이다.
그밖의 저서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自然치유에 몸을 맡겨라] [내 안의 自然이 나를 살린다] [양생 의학 천자문] 등이 있다.

범해선사(梵海禪師) 편저
김윤세(金侖世) 한역
780P | 양장본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八十年前渠是我),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이고녀(八十年後我是渠)
- 청허(淸虛) 휴정(休靜:1520~1604)이
입적하기 직전, 마지막 설법을 마친 후
자신의 영정 위에 쓴 시. 〈본문 중에서〉

건강 환승의 門!
月刊 [인산의학]